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2016. 6. 8 — 7. 23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2016. 6. 8 — 7. 23

이야기의 재건 2 : 던컨 캠벨, 오톨리스 그룹, 그리고 와엘 샤키
2016. 8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2016. 10 — 2017. 1(예정)

이야기의 재건 4 : 다중구조, 이것 또는 저것
2017. 3 — 4(예정)

이야기의 재건 5 : 폴리포니, 가상의 나
2017. 5 — 7(예정)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June 8th 2016 — July 23rd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2 :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
August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and alterity,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October 2016 — January 2017(scheduled)

Reconstruction of Story 4 :
Multi-structure : Ici et ailleurs
March 2017 — April 2017(scheduled)

Reconstruction of Story 5 :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May 2017 — July 2017(scheduled)

서문

지난 2년 동안 MMCA필름앤비디오는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의 막다른 길'에 놓인 영화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무빙이미지 작품들의 극장상영과 극장용 영화의 전시'라는 영화와 미술의 영역 교차 및 이동은 이미지의 근원과 표현양식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다. 동시대 아티스트들에게 영화와 미술이란 구분은 이미 무의미하거나 혹은 단지 정치적 신념의 문제처럼 남아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접하는 관객에겐 영화와 미술의 시초, 사라진 시초의 기억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영화적 시간 속에서 구현되는 모든 행동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관객의 심리 속에 이야기의 형태가 살그머니 똬리를 튼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신화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영화는 서사형식의 혁명을 꿈꾸며 변형을 시도해왔다. 영화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서사적 형식의 실험을 주도하고 타장르 예술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것은 영화의 제한된 시간성이 허락한 기회와 같다. 이야기는 현실을 규정하고 사실을 추적하는 작가의 관점에 따라 그 구조와 양식을 변형하면서 이미지의 행동성에 관여한다. MMCA필름앤비디오는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작가의 의식을 관통하는 온갖 사유와 정서, 연구의 흔적들이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재건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이야기의 재건> 시리즈를 기획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몇 가지 수사학적 특징들로 분류된 카테고리 안에서 고전과 최근 영화들을 함께 상영하면서 영화적 시간으로 재건된 또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For the past two years, MMCA Film & Video has been consistently speaking about the expansion of film placed in the 'dead-end of image' through several curated programs. The intersection and movement of film and arts between the screenings of moving image works in theater and exhibition of theatrical films left us with more questions to ponder about the origin and expressive form of image. The division between film and art is either senseless or it remains as mere issue of political belief to the contemporary artists, but to the audience, it may be the momentum to recall memory of the lost root, the forgotten beginning of film and art. Following the traces of every behavior employed within the cinematic time, certain shape of story surreptitiously coils in the mentality of the audience. In the stories repeated in identical pattern like the endlessly reproduced myths, film had attempted modification in dreams of revolutionizing the narrative form. Film was in the lead of experimenting the narrative form expressed in image and exercised influence on other genres of art. This is likely an opportunity approved by the limited temporality of film. The story defines reality and upon the perspective of the artist who tracks the truth the structure and form transforms, interfering into the behavior of image. It was a natural behavior for MMCA Film & Video to curate Reconstruction of Story series in search of new path in the 'dead-end of image' by examining how the entire ideas, sentiments and traces of studies penetrating the conscious of artists come to reconstruct additional stories. In this sense, the respective program simultaneously screens classic and recent films categorized in number of rhetorical features while sharing another world reconstructed in cinematic time.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리즈는 역사적 실체와 허구를 추적하거나 서사구조의 한 형태로써 은유적 시간을 빌리는 영화들, 즉 알레고리를 통해 상상적 진실에 접근하거나 추상적 현실 또는 원시적인 인간 욕망의 근원을 비유하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Manoel de Oliveira)가 타계한 이후의 포르투갈 영화는 여전히 페드로 코스타(Pedro Costa)가 건재하지만 포르투갈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기억은 현재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고 몇몇 젊은 감독들은 그 흔적을 찾아 나선다. 특히 미겔 고미쉬(Miguel Gomes)의 <천일야화>삼부작은 화자의 관점을 구전설화의 익명성처럼 객관적인 위치로 확장시키면서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두 편의 포르투갈 신작은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파괴되어가는 영혼의 풍경들을 지배자인 군인의 관점에서 시적으로 묘사한다. 조셉 콘래드의 단편소설『문명의 전초기지(An outpost of Progress)』(1897)를 각색한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의 <문명의 전초기지>(2016)는 19세기 말 아프리카 콩고의 무역출장소를 배경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가 역전하는 몽환적인 상태를 밀도 있게 재현한다. 포르투갈의 문호 안토니오 로보 안투네스의 자전적 소설을 각색한 이보 M. 페레이라의 <전장에서 온 편지>(2016)는 1970년대 초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일어난 식민전쟁의 비극을 시적 편지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P.P. Pasolini)는 그의 영화를 통해 개인의 욕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 사이에서 문명의 기원을 암시하는 거대한 알레고리를 구축했다. 시적 영화(cinema di poesia)를 꿈꾸었고 자유로운 세계를 열망했던 파솔리니의 인생삼부작(데카메론, 천일야화, 캔터베리 이야기)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세계의 아이러니를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이 작품들은 고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영화적 시간을 통한 새로운 재건으로 보인다.

필리핀 독립영화의 대부 키드랏 타히믹의 신작 <발릭바얀#1—돌아온 과잉개발의 기억III>(2015)은 실재하나 보이지 않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픽션과 실화가 복합적으로 재건하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요아킴 하무의 <UIP27>(2015)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가 두 국가의 연방제로 해결되어가는 미래시점의 공간에서 현재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한다 .

대표작 <하녀>(1960)로 기억되는 김기영 감독의 숨은 걸작 <파계>(1974)는 깨달음을 구하는 인간의 추상적 열망과 구체적 욕망 사이의 관계를 파격적(금기시 된 것들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의 서사적 형식은 궁극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욕망과 열망의 변증법적 관계를 시적으로 재건한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2012)는 거대한 배후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권력의 비참한 희생자들인 특정 인간들을 '죄와 벌'의 최후처럼 전형적인 알레고리로 재현한다.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The first series of the program introduces films that either traces historical substance and fiction or borrows metaphorical time in the form of narrative structure, in other words films that approach imaginary truth through allegory or compare abstract reality and the root of primitive human desires.

The scene of Portuguese film is still prosperous with Pedro Costa since the death of Manoel de Oliveira, but we could sense a new movement of young film directors discussing the past and future of Portugal. The memory of imperialism is left as invisible vestiges in their lives and several young directors are in search of these remnants. Miguel Gomes' trilogy of *Arabian Nights* especially extends the perception to an objective position mirroring the anonymity of oral fable while naturally blending documentary and fiction. Recent Portuguese's new films depict the landscape of spirit destroyed by the violent of imperialism through the poetic perspective of colonial officials. Hugo Vieira da Silva's film *An Outpost of Progress*(2016), based on a novel by Joseph Conrad about two white men in charge of the trading station in late 19th century Congo, represents a trance relations in depth between colonizers and natives. *Letters from War*(2016) based on the letters of world famous Portuguese writer António Lobo Antunes to his wife, Ivo M. Ferreira has created a poetical love letter in which his words are full of tragic during Portuguese colonial war in the early 1970s Angola.

P.P. Pasolini constructed colossal allegory implicating the origin of civilization between the ideology governing the world and individual desire through his films. Pasolini dreamed of poetic film(cinema di poesia) and aspired unconstrained world, and he satirically portrays the irony of complex and contradictory world in the Trilogy of Life. These works appear as renewed construction through cinematic time apart from the interpretation of classic works.

The father of Philippines independent film, Kidlat Tahimik's recent work, *Balikbayan #1—Memories of Overdevelopment Redux III*(2015) poses question on historical truth through the story reconstructed in combination with fiction and true account within the transformation of existent but invisible time.

Joachim Hamou's *UIP27*(2015) reflects on the questions of present through the space of future's perspective, which is addressed as two nations' federal system in the history of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ransgression(1974) is a hidden masterpiece of director Kim Ki-young who is mostly known for his representative piece, *The Housemaid. Transgression* provocatively(in the sense of destroying the taboos) expo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tract aspiration and concrete desires of men who seek enlightenment. The narrative form of this film does not describe the utmost pursuit, but poetically reconstructs dialectical relations of ultimate desire and aspiration. Director Kim Ki-duk's *Pieta*(2012) represents certain human beings, the devastating victims of capitalist authority operated by massive power behind, in an archetypal allegory similar to the last moment of 'Crime and Punishment'.

상영 시간표
2016. 6. 8 — 7. 23

상영시간 / 등급

등급
Ⓖ 전체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⑲ 19세 이상 관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6.8 18:3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9** 15: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 (125min)	**10** 15: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I (131min)	**11** 14:00 ⑲ 김기덕—피에타(104min) 18:30 ⑲ 김기영—파계(112min)	**12** 15: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III(125min)
15 14:00 ⑲ 미겔 고미쉬— 터부(110min) 18:30 ⑲ P. P. 파솔리니— 천일야화(130min)	**16** 15:00 Ⓖ 니키 리 특별상영 —영원히(8min) —A.K.A. Nikkie S. Lee(60min)	**17** 15:00 ⑲ P. P. 파솔리니— 캔터베리 이야기(109min)	**18** 14: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III(125min) 18:30 ⑲ P. P. 파솔리니— 데카메론(112min)	**19** 15:00 ⑲ 김기영— 파계(112min)
22 14:0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18:30 ⑲ P. P. 파솔리니— 캔터베리 이야기(109min)	**23** 15:00 ⑲ P. P. 파솔리니— 데카메론(112min)	**24** 15:0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25** 14:00 ⑲ 미겔 고미쉬— 터부(110min) 18:3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26** 15:00 Ⓖ 니키 리 특별상영 —영원히(8min) —A.K.A. Nikkie S. Lee(60min)
29 14:00 ⑲ P. P. 파솔리니— 천일야화(130min) 18:3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I (131min)	**30** 15:00 ⑲ P. P. 파솔리니— 데카메론(112min)	**7.1** 15: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 (125min)	**2** 14:00 ⑲ P. P. 파솔리니— 천일야화(130min) 18:30 ⑲ 김기덕— 피에타(104min)	**3** 15:00 ⑲ P. P. 파솔리니— 캔터베리 이야기(109min)
6 14: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 (125min) 18:3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7** 15:0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8** 15: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III(125min)	**9** 14:00 ⑲ 미겔 고미쉬— 천일야화 II (131min) 18:3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10** 15:0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13 14:00 ⑮ 요아킴 하무— UIP27(75min) 18:15 ⑮ 키드랏 타히믹— 발릭바얀#1(140min)	**14** 15:00 Ⓖ 니키 리 특별상영 —영원히(8min) —A.K.A. Nikkie S. Lee(60min)	**15** 15:0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16** 14:00 ⑮ 키드랏 타히믹— 발릭바얀#1(140min) 18:30 ⑲ 미겔 고미쉬— 터부(110min)	**17** 15:0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20 14:00 ⑮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121min) 18:30 ⑮ 요아킴 하무— UIP27(75min)	**21** 15:00 ⑲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105min)	**22** 15:00 Ⓖ 니키 리 특별상영 —영원히(8min) —A.K.A. Nikkie S. Lee(60min)	**23** 14:00 ⑮ 요아킴 하무— UIP27(75min) 18:30 ⑮ 키드랏 타히믹— 발릭바얀#1(140min)	**24**

Screening Schedule
2016. 6. 8 — 7. 23

Running Time / Ratings

Ratings
Ⓖ General
⑮ Under 15 not admitted
⑲ Under 19 not admitted

WED	THU	FRI	SAT	SUN
6.8 18:3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9** 15: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 I (125min)	**10** 15: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 II (131min)	**11** 14:00 ⑲ KIM Ki-duk—Pieta(104min) 18:30 ⑲ KIM Ki-young— Transgression(112min)	**12** 15: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III (125min)
15 14:00 ⑲ Miguel Gomes— Tabu(110min) 18:30 ⑲ P. P. Pasolini— A Thousand and One Nights(130min)	**16** 15:00 Ⓖ Special Screening Nikkie Lee —Yours(8min) —A.K.A. Nikkie S. Lee(60min)	**17** 15:00 ⑲ P. P. Pasolini— The Canterbury Tales(109min)	**18** 14: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III (125min) 18:30 ⑲ P. P. Pasolini— The Decameron(112min)	**19** 15:00 ⑲ KIM Ki-young— Transgression((112min)
22 14:0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18:30 ⑲ P. P. Pasolini—The Canterbury Tales(109min)	**23** 15:00 ⑲ P. P. Pasolini— The Decameron(112min)	**24** 15:0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25** 14:00 ⑲ Miguel Gomes— Tabu(110min) 18:3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26** 15:00 Ⓖ Special Screening Nikkie Lee —Yours(8min) —A.K.A. Nikkie S. Lee(60min)
29 14:00 ⑲ P. P. Pasolini— A Thousand and One Nights(130min) 18:30 ⑲ Miguel Gomes—Arabian Nights Vol. II (131min)	**30** 15:00 ⑲ P. P. Pasolini— The Decameron(112min)	**7.1** 15: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 I (125min)	**2** 14:00 ⑲ P. P. Pasolini— A Thousand and One Nights(130min) 18:30 ⑲ KIM Ki-duk—Pieta(104min)	**3** 15:00 ⑲ P. P. Pasolini— The Canterbury Tales(109min)
6 14:00 ⑲ Miguel Gomes—Arabian Nights Vol. I (125min) 18:3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7** 15:0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8** 15:00 ⑲ Miguel Gomes— Arabian Nights Vol.III (125min)	**9** 14:00 ⑲ Miguel Gomes—Arabian Nights Vol. II (131min) 18:3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10** 15:0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13 14:00 ⑮ Joachim Hamou— UIP27(75min) 18:15 ⑮ Kidlat Tahimik— Balikbayan#1(140min)	**14** 15:00 Ⓖ Special Screening Nikkie Lee —Yours(8min) —A.K.A. Nikkie S. Lee(60min)	**15** 15:0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16** 14:00 ⑮ Kidlat Tahimik— Balikbayan#1(140min) 18:30 ⑲ Miguel Gomes— Tabu(110min)	**17** 15:0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20 14:00 ⑮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121min) 18:30 ⑮ Joachim Hamou— UIP27(75min)	**21** 15:00 ⑲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105min)	**22** 15:00 Ⓖ Special Screening Nikkie Lee —Yours(8min) —A.K.A. Nikkie S. Lee(60min)	**23** 14:00 ⑮ Joachim Hamou— UIP27(75min) 18:30 ⑮ Kidlat Tahimik— Balikbayan#1(140min)	**24**

목차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포르투갈 영화의 새로운 흐름

미겔 고미쉬
터부
천일 야화 1 : 불안해하는 자
천일 야화 2 : 비탄에 잠긴 자
천일 야화 3 : 마법에 걸린 자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

파솔리니의 '인생 삼부작'

데카메론
캔터베리 이야기
천일야화

파괴와 구원

김기영, 파계
김기덕, 피에타

탈식민주의와 분쟁의 종결

키드랏 타히믹
발릭바얀 #1—
돌아온 과잉개발의 기억 III

요아킴 하무
UIP27

Contents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New Wave of Portuguese Cinema

Miguel Gomes
Tabu
Arabian Nights : Volume 1, The Restless One
Arabian Nights : Volume 2, The Desolate One
Arabian Nights : Volume 3, The Enchanted One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P. P. Pasolini's Trilogy of Life

The Decameron
The Canterbury Tales
A Thousand and One Nights

Destruction and Redemption

Kim Ki-young, Transgression
Kim Ki-duk, Pieta

Postcolonialism and Dispute Resolution

Kidlat Tahimik
Balikbayan #1—
Memories of Overdevelopment Redux III

Joachim Hamou
UIP27

포르투갈 영화의 새로운 흐름

New Wave of Portuguese Cinema

1. 미겔 고미쉬
터부
천일 야화 1 : 불안해하는 자
천일 야화 2 : 비탄에 잠긴 자
천일 야화 3 : 마법에 걸린 자

2. 이보 M. 페레이라
전장에서 온 편지

3.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문명의 전초기지

1. Miguel Gomes
Tabu
Arabian Nights : Volume 1,
The Restless One
Arabian Nights : Volume 2,
The Desolate One
Arabian Nights : Volume 3,
The Enchanted One

2. Ivo M. Ferreira
Letters from War

3. Hugo Vieira da Silva
An Outpost of Progress

미겔 고미쉬

미겔 고미쉬는 1972년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그는 리스본 영화연극학교에서 수학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포르투갈 언론계에서 영화 비평가로 활동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얼굴>(2004)은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다. 2008년에 그의 최신작 <우리가 사랑하는 8월>이 칸 영화제의 감독주간 부문에서 상영되었고, 이후 40여 개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십여 개의 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된 바 있다.

Miguel Gomes

Miguel Gomes was born in Lisbon in 1972. He studied at the Lisbon Film and Theatre School and worked as film critic for the Portuguese press between 1996 and 2000. *The Face You Deserve*(2004) was his first feature film. In 2008, he presented his latest film, *Our Beloved Month of August* in the Directors' Fortnight at the Cannes Festival, which was subsequently selected in more than forty international festivals where he won over a dozen prizes. Besides his films have been presented at foremos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터부

미겔 고미쉬 | 포르투갈, 독일, 브라질, 스페인 | 2012 | 110min | DCP | B/W

리스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한 괴팍한 노파와 그녀의 카보베르데 공화국(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국가) 출신의 가정부 그리고 그들의 이웃은 사회적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노파가 죽었을 때 다른 두 사람은 노파의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된다. 그 이야기는 어드벤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사랑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이다.

Tabu

Miguel Gomes | Portugal, Germany, Brazil, Spain | 2012 | 110min | DCP | B/W

A temperamental old woman, her Cape Verdean maid and a neighbour devoted to social causes live on the same floor of a Lisbon apartment building. When the old lady dies, the other two learn of an episode from her past: a tale of love and crime set in an Africa straight from the world of adventure films.



천일야화 삼부작

위기에 처한 유럽국가들 중 하나인 포르투갈에서 한 영화감독이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있음직한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자신의 작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그는 비겁하게 달아나고 아름다운 세헤라자데가 대신하게 한다. 세헤라자데는 열정과 용기를 내어 그 나라의 슬픈 이야기들로 왕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한다. 여러 밤이 지나면서 초조함이 황량함에 이르고 이는 곧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세 권의 책으로 만든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오 행운의 왕이시어, 만국 중 이 슬픈 나라에서...”

Trilogy of Arabian Nights

In Portugal — one European country in crisis — a film director proposes to build fictional stories from the miserable reality he is immersed in. However, failing to find meaning in his work, he cowardly runs away and leaves the beautiful Scheherazade to stand in his shoes. She will require enthusiasm and courage so as not to bore the King with sad stories of this country. As nights go past, restlessness leads to desolation and in turn to enchantment. Therefore Scheherazade organizes the stories she tells the King in three volumes. She begins like this: “It hath reached me, O auspicious King, that in a sad country among all countries...”.



천일야화 1
불안해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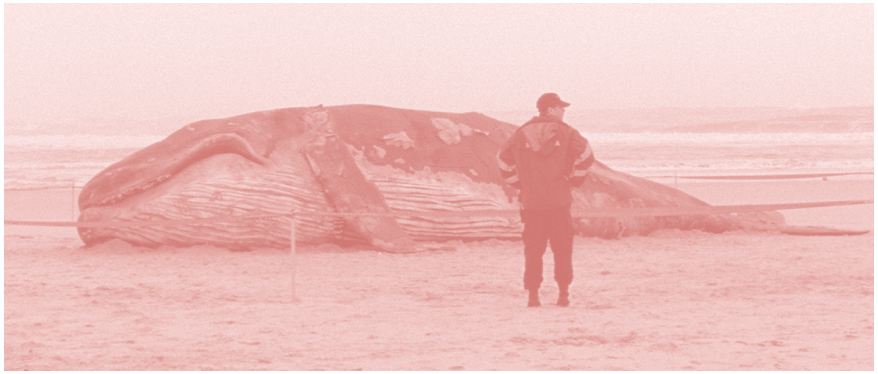
미겔 고미쉬 | 포르투갈, 독일 | 2015 | 125min | DCP | Color

세헤라자데는 나라에 닥친 불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것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오 행운의 왕이시어, 만국 중 이 슬픈 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어와 고래를 꿈꾸고 실업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내려도 숲이 밤까지 불에 탑니다. 남녀는 한 겨울에 바다로 나가길 열망합니다. 말하는 동물들은 가끔 있으나 들어줄 이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 이 나라에서 권력자들이 낙타를 타고 어슬렁거리며 영원히 지속되는 부끄러운 발기를 숨깁니다. 그들은 마법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세금이 거둬질 때를 기다립니다...” 세헤라자데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멈추었다.

Arabian Nights : Volume 1
The Restless One

Miguel Gomes | Portugal, Germany | 2015 | 125min | DCP | Color

In which Scheherazade tells of the restlessness that befell the country: “It hath reached me, O auspicious King, that in a sad country among all countries, where people dream of mermaids and whales, and unemployment is spreading. In certain places, forests burn into the night despite the falling rain; men and women long to set out to sea in the middle of Winter. Sometimes there are animals that talk although it is highly improbable that they are listened to. In this country, where things are not what they appear to be, men of power promenade on camels and hide permanent and shameful erections; they await the moment when taxes are collected so they can pay a certain wizard whom…” And seeing the morning break, Scheherazade fell silent.



천일야화 2
비탄에 잠긴 자

미겔 고미쉬 | 포르투갈, 독일 | 2015 | 131min | DCP | Color

세헤라자데는 황량함이 어떻게 사람들을 침범하는지 이야기한다. “이것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오 행운의 왕이시어, 괴로워하는 판사가 세 개의 달이 일치하는 밤에 판결을 내리는 대신 울부짖을 것입니다. 도망간 살인자는 40일 넘게 대지를 헤맬 것이고 창녀와 자고새를 꿈꾸는 동안 경찰을 피하기 위해 순간이동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암소는 천년 된 올리브나무에 대해 회상하며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슬픔일 것입니다. 교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유령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앵무새들을 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줌을 눌 것입니다. 또한 한 마리 개가...” 세헤라자데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멈추었다.

— “빌어먹은 이야기들! 만약 일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내 딸은 결국 목이 잘리고 말거야”
— 세헤라자데의 아버지 대 비지르는 바그다드에 있는 자신의 성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Arabian Nights : Volume 2
The Desolate One

Miguel Gomes | Portugal, Germany | 2015 | 131min | DCP | Color

In which Scheherazade tells of how desolation invaded men: “It hath reached me, O auspicious King, that a distressed judge will cry instead of giving out her sentence on a night when all three moons are aligned. A runaway murderer will wander through the land for over forty days and will teletransport himself to escape the Police while dreaming of prostitutes and partridges. A wounded cow will reminisce about a thousand-year-old olive tree while saying what she must say, which will sound none less than sad! The residents of a tower block in the suburbs will save parrots and piss inside lifts while surrounded by dead people and ghosts; including in fact a dog that…”. And seeing the morning break, Scheherazade fell silent.

— “Damned tal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my daughter will surely end up with her throat slit!”
— the Grand-Vizier, Scheherazade’s father, thinks in his palace in Bagdad.



천일야화 3
마법에 걸린 자

미겔 고미쉬 |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프랑스 | 2015 | 125min | DCP | Color

세헤라자데는 3,000톤의 무게가 나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염려한다. 그래서 그녀는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해 왕국을 여행한다. 세헤라자데의 아버지 대 비지르는 관람차에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오 행운의 왕이시여, 리스본의 오래된 마을들 가운데에는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들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온갖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Arabian Nights : Volume 3
The Enchanted One

Miguel Gomes | Portugal, Germany, Switzerland, France | 2015 | 125min | DCP | Color

In which Scheherazade doubts that she will still be able to tell stories to please the King, given that what she has to tell weighs three thousand tons. She therefore escapes from the palace and travels the kingdom in search of pleasure and enchantment. Her father, the Grand-Vizier, arranges to meet her at the Ferris wheel and Scheherazade resumes her narration: "O auspicious King, in old shanty towns of Lisbon there was a community of bewitched men who, with all dedication and passion, devoted themselves to teaching birds to sing…". And seeing the morning break, Scheherazade fell silent.



이보 M. 페레이라

이보 M. 페레이라는 1975년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영화에 대한 취향이 매우 어린 나이에 형성되었다. 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마카오에서 자신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감독하고 제작했다. 그 후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엑스포98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 2000년에는 앙골라의 에린가 극장에서 작업하면서 그 나라와 PALOPS(포트투갈어를 사용하는 5개 아프리카 나라가 조직한 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인류학적 다큐멘터리들을 만들게 된다. <전장에서 온 편지>는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로 그가 지금까지 작업한 영화들 중 가장 큰 프로젝트이다.

Ivo M. Ferreira

Ivo M. Ferreira was born in Lisbon in 1975. The taste for cinema comes very soon. On a trip through Asia, he gets to Macau, where he directs and produces his first documentary. He is then invited by EXPO98 to direct a second film. A brief but remarkable passage through Angola in 2000, while working with the Elinga Theater, arises his interest for the country and PALOPS, where he directs anthropological documentaries. *Letters From War* is his third feature film and biggest project.

전장에서 온 편지

이보 M. 페레이라 | 포르투갈 | 2016 | 105min | DCP | B/W

1971년, 안토니오 로보 안투네스의 인생은 앙골라 동부의 식민지 전쟁 중 최악으로 손꼽히는 지역에 포르투갈 군대의 군의관으로 징집되면서 무참히 꼬이기 시작했다. 소중한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인 상황 속에 빠져들고,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 주둔지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는 아프리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성숙해 간다. 그의 곁에는 전 세대가 귀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또 체념한다.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편지만이 유일하게 그를 생존케 하는 힘이 된다.

Letters from War

Ivo M. Ferreira | Portugal | 2016 | 105min | DCP | B/W

1971. António Lobo Antunes life is brutally interrupted when he is drafted into the Portuguese Army to serve as a doctor in one of the worst zones of the Colonial War – the East of Angola. Away from everything dear he writes letters to his wife while he is immersed in an increasingly violent setting. While he moves between several military posts he falls in love for Africa and matures politically. At his side, an entire generation struggles and despairs for the return home. In the uncertainty of war events, only the letters can make him survive.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는 포르투갈의 제 2의 도시 오포르투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 번째 장편영화 <바디 라이스>(2006)는 파울로 브랑코가 제작을 맡았으며, 그에게 여러 상을 안겨 주었다. 특히 이 작품으로 로카르노 영화제(2006)의 공식경쟁 부문의 "특별언급"을 받았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2007)와 멕시코시티 국제현대영화제(2007)에서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그의 새로운 장편영화 <문명의 전초기지>(2016)는 영국 소설가 조셉 콘래드의 소설을 포르투갈 버전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프리카 콩고강에서 촬영되었으며 제 66회 베를린 영화제 공식 부문(포럼 2016)에 초청되었다.
현재 비엔나와 리스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Hugo Vieira da Silva

Born in Oporto, Portugal. His first feature film *Body Rice*(2006) produced by Paulo Branco, won several awards, most notably: "special mention" of the Official competition in Locarno(2006), the "best director" category in Buenos Aires(Bafici 2007) and in Mexico city(Ficco-2007).
His new feature film *An Outpost of Progress* (2016)- a Portuguese mimicry of the J.Conrad story(1897) was shot in Africa at the Congo River(Angola) and selected for the 66th Berlinale official selection- Forum 2016. Hugo Vieira da Silva currently lives and works between Vienna and Lisbon.

문명의 전초기지

위고 비에이라 다 실바 | 프랑스, 포르투갈 | 2016 | 121min | DCP | Color

19세기 말, 무역업에 첫발을 내딛은 두 명의 포르투갈 남자가 식민지를 문명화하라는 막연한 임무를 받고 아프리카 콩고강 주변 외딴 지역에 위치한 무역 출장소로 부임한다.
시간이 지나도 상아 무역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점점 의기소침해진다. 거기다 이웃 원주민들과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무역선도 오지 않아 적도의 정글에 고립되고 만다. 그들은 황폐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An Outpost of Progress

Hugo Vieira da Silva | France, Portugal | 2016 | 121min | DCP | Color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wo inexperienced Portuguese colonizers, with a vague intention of civilizing the colonies, disembark in a remote part of the Congo River in order to coordinate a trading post.
As time goes by, they become increasingly demoralized by their inability to profit from the ivory trade. A mutual feeling of distrust and misunderstadings with the locals isolate them at the heart of the tropical jungle. Faced with each other, they begin a journey towards the abyss.



program 2.

파솔리니의 '인생 삼부작'

P. P. Pasolini's Trilogy of Life

데카메론
캔터베리 이야기
천일야화

The Decameron
The Canterbury Tales
A Thousand and One Nights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영화감독이 되기 전에 이미 시와 소설로 명성을 얻고 있던 파솔리니는 네오리얼리즘에 영향을 받은 첫 장편 영화 <아카토네>를 시작으로 그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나갔다. 주관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담론들이 금기를 조롱하는 개인적인 판타지, 기독교적 원리, 보편적 신화의 세계와 만나 야만성과 숭고함이 뒤섞인 영화적 세계를 구축했다. 평론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던 그는 영화를 현실에 대해 기술된 언어처럼 신뢰했고 시적 영화(cinema di poesia)를 추구하며 이론화 했다. 파솔리니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은 <오이디푸스왕>(1967)이나 <메데아>(1970)와 같은 원시적 욕망의 고대풍경을 재현하거나 <테오레마>(1968)와 <돼지우리>(1970)처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야만적이고 무질서한 세계를 바로크적 상상력으로 양식화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한 끝없는 외침처럼 단순하고 강렬하게 예수의 마지막을 그려낸 <마태복음>(1964)은 직업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을 출연시켰으며 이전 작품과 다른 카메라 워크, 시네마 베리테적인 기법을 활용하면서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그의 인생 삼부작 <데카메론>(1971), <켄터베리 이야기>(1972), <천일야화>(1974)는 <매와 참새>(1966)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성적 농담으로 가득한 코미디와 같다. 그리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작된 그의 마지막 작품 <살로소돔의 120일>(1975)은 추악한 파시스트가 벌이는 온갖 종류의 극단적인 잔혹행위들이 묘사된다. 파솔리니의 마지막 영화는 일체의 미화도 거부한 적나라한 지옥의 풍경이었다.

Pier Paolo Pasolini

Pasolini had already gained fame with his poems and novels before he became a film director and with his first full-length film *Accatone*, which was heavily influenced by neorealism, he began his provocative filmography, shocking as much as his death. With subjective and macroscopic discourse, he structured a cinematic world mixed with brutality and sublimity in encounter with the world of myth, religious principles, and individual fantasy mocking taboos.
Pasolini was also a critic and a theorist and thus he trusted cinema to be a defined language of reality and theorized cinema di poesia in pursuit. Pasolini's contemplation on human and the world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thropology led to the representation of ancient landscape of primitive desire in his films, *Edipo re*(1967) and *Medea*(1970), and conventionalized the brutal and disorderly world latent within human nature using Baroque imagination in his works, *Theorema*(1968) and *Porcile*(1970). *Il vangelo secondo Matteo*(1964), which depicted the last moment of Jesus in striking and simple way, echoing the endless cry against the corrupt world, Pasolini used ordinary people as actors and attempted change by utilizing direct cinema technique and different camera walk. His 'Trilogy of Life', *Il Decameron*(1971), *Racconti di Canterbury*(1972), and *Il fiore delle Mille e una Notte*(1974) are not as romantic as *Uccellacci e uccellini* (1966), but comedy full of sexual humors. His last film before his death, *Salo O Le 120 Giornate Di Sodoma*(1975) portrays all kinds of extreme atrocity committed by the hideous fascist. The very last film of Pasolini was an explicit scene of hell, in denial of every single bit of beautification.

데카메론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 1971 | 112min | 35mm | Color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의 원작 중 10개의 이야기를 골라 만든 영화이다. 이 소설은 페스트를 피해 피렌체의 시골에 머물고 있는 젊은 남녀가 돌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소설로, 종교에 대한 풍자, 도덕과 권위에 억눌린 남녀의 성, 세속적 권력에 대한 풍자로 가득하다.
1960년대까지 지식인을 위한 고급영화를 제작하던 파솔리니는 이 영화를 기점으로 대중들을 위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파솔리니는 원작에서 하층민의 이야기들을 모아 재구성했는데, 벙어리인척 하면서 수녀원의 수녀들과 관계를 맺는 정원사, 부모님 몰래 옥상에서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는 처녀, 집에 남자친구를 숨기는 유부녀 등 불손한 유머가 가득한 이야기로 내용을 채웠다. 리얼리티의 재현을 위해 일반인을 배우로 등장시키고, 세트장이 아닌 실제 일상공간에서 촬영했다.

The Decameron

P. P. Pasolini | Italy, France, Germany | 1971 | 112min | 35mm | Color

This is a film made from ten selective stories from Giovanni Boccaccio's novel, *The Decameron*. This is a pictorial fiction told by young man and woman who fled from the plague into the rural area of Firenze. The main plot is a satire on religion, sexuality of men and women repressed by moral and authority, and secular power.
Pasolini produced high-class films only for intellectuals until the 1960's and taking this film as a starting point, he began making films for the general public. Pasolini recomposed the collected stories of the lower class from the original novel. Stories of insolent humor from a gardener pretending to be mute, having sexual intercourses with nuns from the convent, a virgin having sex with her boyfriend on the rooftop hiding from her parents, and a married woman hiding her boyfriend in the house. For representation of reality, an ordinary person appears as actor and it was filmed in real everyday-life space not in a set studio.



캔터베리 이야기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 이탈리아, 프랑스 | 1972 | 111min | 35mm | Color

‘인생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캔터베리 이야기>는 영국의 제프리 초서가 쓴 서사시 『캔터베리 이야기』를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로 그려낸 작품이다. 순교자 토마스 베켓 무덤을 참배하러 가던 순례자들이 한 여관에서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파솔리니가 제프리 초서 역을 맡아 불경스러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어린 신부를 얻은 늙은 부자의 이야기, 시골 결혼식에 참석한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 거짓말을 일삼던 성직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 등 각 에피소드마다 동성애, 사디즘 등의 파격적인 묘사가 이어진다.

The Canterbury Tales

P. P. Pasolini | Italy, France | 1972 | 111min | 35mm | Color

The Canterbury Tales is a second series of ‘Trilogy of Life’ and it is an explicit sexual portrayal of *The Canterbury Tales* written by Geoffrey Chaucer’s in Middle English. The pilgrims share intriguing stories with one another at an inn on the way to visit the tomb of the martyr, Thomas Becket. Pasolini actually played the role of Geoffrey Chaucer to tell the blasphemous episode. It illustrates shocking episodes of homosexuality, sadism and etc. from a story of an old rich man married to a young wife, a poor young man at a rural wedding to a lying clergyman fallen into hell.



천일야화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 1974 | 130min | 35mm | Color

영화 <천일야화>는 ‘인생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이슬람 문학『천일야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사랑하는 노예가 납치되자 그녀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에로틱한 이야기를 하나씩 듣던 주인공은 마침내 사랑하는 노예를 찾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네팔, 예멘, 이란 등지에서 촬영을 한 이 작품에서는 동양에 대한 파솔리니의 관심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3부작 중 가장 쾌활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띄지만 특유의 직설적인 성적 묘사와 난해한 표현들은 고스란히 담겨있다.

A Thousand and One Nights

P. P. Pasolini | Italy, France, U.S.A | 1974 | 130min | 35mm | Color

This is the last series of ‘Trilogy of Life’ and it is a representation of an Islamic literature, *Arabian Nights*. The story deals with a man who sets out on a journey to find his beloved slave who is kidnapped. The protagonist hears erotic stories from people he meets on this journey and at last he comes to a happy ending with the slave. This work was filmed in Nepal, Yemen, Iran and etc. and we can witness Pasolini’s interest and imagination in Asia. This film has the most cheerful and pleasant ambience from the trilogy, but it still carries his peculiar blunt sexual portrayal and complex expressions.



program 3.

파괴와 구원

Destruction and Redemption

김기영, 파계
김기덕, 피에타

Kim Ki-young, Transgression
Kim Ki-duk, Pieta

김기영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나 치과대학을 졸업한 김기영은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문화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데뷔했다. 1960년대 최고 흥행감독으로 손꼽히는 김기영은 초기작품에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에 영향을 받아 분단과 전쟁을 겪은 1950년대의 궁핍한 사회상황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려냈다. 이후 엽기적이고 섬뜩한 분위기의 영화 <하녀>를 만들면서부터 그만의 독특한 영화적 세계를 완성해간다. 대표작품으로는 <렌의 애가>, <이어도>, <파계>, <육체의 약속>,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육식동물> 등이 있다.

Kim Ki-young

Kim Ki-young was born in Seoul in 1919 and he graduated the College of Dentistry. He debuted as he began making propaganda films for the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Kim is considered to be the number one box-office director of the 1960's and in his early works Kim realistically illustrated the distressful social condition of 1950's after the separation and war under the influence of Italian neorealism. Afterwards, he began to complete his own unique cinematic world taking *The Housemaid*, which has a grotesque and morbid atmosphere, as the starting point. His representative filmography includes *Elegy of Ren*, *I-eoh Island*, *Transgression*, *Promise of the Flesh*, *A Woman After a Killer Butterfly*, *Carnivorous Animal*, and more.

파계

김기영 | 한국 | 1974 | 112min | 35mm | Color

전화 속에 헤매던 고아 침애는 서산사의 고승 무불당에게 구출되어 입산수도의 길을 걷게 된다. 탁월한 젊은 승으로 성장한 침애에게 법통을 이어받기 위한 마지막 시련이 가해진다.

Transgression

Kim Ki-young | Korea | 1974 | 112min | 35mm | Color

The protagonist, Chim-Ae is an orphan lost in the midst of war calamity and an old monk of Seo San Temple, Mu Bul Dang saves him at last. Following this, Chim-Ae walks the path of mountaineering asceticism and grows up to be an eminent young monk.



김기덕

1960년 생 김기덕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했다.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악어>를 첫 연출하면서부터 폭력에 길들여진 소외된 자들의 삶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나쁜 남자>(2002)를 통해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2004년 제54회 베를린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곰상 수상(사마리아), 같은 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빈집), 2011년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상 수상(아리랑), 2012년 <피에타>(2012)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Kim Ki-duk

Kim Ki-duk was born in 1960 and he educated himself cinema without formal education. After he won a scenario contest and debuted with his work, *Crocodile*. His films sensately illustrate lives of outsiders who are habituated to violence. He had begun to receive international acclaims with *Bad Guy*(2002) and winned Silver Bear(Best Director) for *Samaritan Girl* at the 54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ilver Lion(Best Diector) for *3-Iron* at the 2004 Venice Film Festival, and Un Certain Regard Prize for *Arirang* at the 2011 Canes Film Festival, and Golden Lion Award for *Pieta* at the 2012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피에타

김기덕 | 한국 | 2012 | 104min | DCP | Color

빚을 못 갚는 채무자를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장애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살아가는 강도에게 어느 날 어머니라 주장하는 여자가 찾아온다. 강도는 그녀를 믿지 않고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학대와 구박에도 그의 곁을 배회한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던 그는 그의 살점을 잘라 그녀에게 먹게 하는 시험 끝에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게 된다.

Pieta

Kim Ki-duk | Korea | 2012 | 104min | DCP | Color

Kangdo is a ruthless man whose job is to mutilate debtors in every brutal way possible to extort insurance fee as a repayment. One day a middle-aged lady visits him, claiming to be his mother. Kangdo does not trust the lady and does not admit her as his mother. However, the lady roams around him despite the abuse and maltreatment. As he is a bit shaken at heart, Kangdo removes a piece of his flesh and tests the lady to eat the flesh and comes to acknowledge her as his mother when she swallows a part of him.



탈식민주의와 분쟁의 종결

Postcolonialism and Dispute Resolution

키드랏 타히믹
발릭바얀 #1—
돌아온 과잉개발의 기억 III

요아킴 하무
UIP27

Kidlat Tahimik
Balikbayan #1—
Memories of
Overdevelopment Redux III

Joachim Hamou
UIP27

키드랏 타히믹

키드랏 타히믹은 1942년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에릭 오테이자 드 구이아(Eric Oteyza de Guia)이다. 한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살다가 1975년에 필리핀으로 돌아와 그의 첫 번째 영화 <향기로운 악몽>(1977)을 제작했다. 타히믹은 현재 바기오에서 살고 있으며 영화감독, 설치미술가, 연기자, 강사, 저자로 활동 중이다.

Kidlat Tahimik

Born as Eric Oteyza de Guia in Baguio City in the Philippines in 1942. Tahimik lived for a while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He returned to the Philippines in 1975 and began to work on his first film, *Mababangong Bangungot/perfumed Nightmare*(1977). Tahimik lives in Baguio as a filmmaker, installation artist, performer, lecturer and author.

발릭바얀 #1— 돌아온 과잉개발의 기억 III

키드랏 타히믹 | 필리핀 | 2015 | 140min | DCP | Color

1980년에 촬영을 시작한 <발릭바얀 #1 돌아온 과잉개발의 기억 III>(이하 발릭바얀 #1)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며 세계 일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세계일주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포르투갈 항해사 마젤란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유인이 된 노예 엔리케가 자연스럽게 오늘날 첫 번째 세계일주 여행자로 알려지게 된다. <발릭바얀 #1>(Balikbayan, 필리핀 귀국자)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에 엔리케의 이야기를 엮어 구성하였다. 키드랏 타히믹은 이야기의 진실을 찾기 위해 35년 전에 촬영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이푸가오족 마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더했다. 긴 촬영기간으로 인해 배우들은 달라졌고, 1980년에 엔리케를 연기한 타히믹은 나이든 모습으로 등장한다. <발릭바얀 #1>은 홈무비이자 대담한 서사시, 식민주의에 대한 연구, 잘못된 역사의 교정이며 타히믹이 '인디오의 천재성'이라 말하는 것에 대한 오마주이다.

Balikbayan #1—Memories of Overdevelopment Redux III

Kidlat Tahimik | Philippines | 2015 | 140min | DCP | Color

Shot in 1980 and now showing their age, the images tell the story of the circumnavigation. Portuguese Magellan died shortly before the journey was completed, but had authorized that Enrique, a Magellan's slave, now by default the first true circumnavigator, was to become a free man. *Balikbayan #1* weaves together the official story with that of Enrique, as well as with the director's cut of what Tahimik started filming 35 years ago in order to find out the truth and continued in a village in the province of Ifugao in 2013. The actors are no longer the same, and Tahimik, who himself played Enrique in 1980, has grown older, just as children have been born. *Balikbayan #1* is a home movie, a flamboyant epic, a study of colonialism, a historical corrective and an homage to what Tahimik calls 'Indio Genius'.



요아킴 하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요아킴 하무는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공공 이벤트를 제작한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공동체 결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와 영화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만든다. 모로코와 스웨덴 출신의 가족을 둔 하무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와 스톡홀름에서 성장해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경험했다. 요아킴 하무는 현재 시각 예술과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독립 기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Joachim Hamou

Joachim Hamou is an artist, who works in multiple media and produces public events in collaboration with several community organizations. Community building is at the forefront of his projects.
His collaborative art projects and films actively engage people in recognizing,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ng in problem solving related to complex social issues. Born in France, growing up in Paris and Stockholm within a Moroccan and Swedish family, Joachim has had broad educational experiences, is multi-lingual, and actively engaged with cultural diversity. Joachim Hamou works with both visual art and performing art. For a long period he was based in Copenhagen where he created many independent institutions.

UIP27

요아킴 하무 |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 2015 | 75min | DCP | Color

<UIP27>은 "2027 통일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약자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그린 가상시나리오이다. UIP 2027에서는 새로운 권력인 유엔과 국제재판소가 UIP의 헌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모든 영토, 신체, 소유와 유산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뤄진다. <UIP27>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족 간에 토지 소유권 주장과 배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짜 법정 소송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UIP27

Joachim Hamou | Denmark, Sweden, France | 2015 | 75min | DCP | Color

UIP27 is an abbreviation for "United Israel Palestine 2027" and refers to a imposed future scenario for Israel and Palestine. In UIP 2027 the new occupational power, The United Nations, and thus an international court, handles the conflicts following the constitution of UIP. It is from a juridical perspective that all territories, bodies, ownerships and legacies are considered. In *UIP27* we follow a fictive court case between an Israeli and a Palestinian family disputing land claim and compensations.



다음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2 :
던컨 캠벨, 오톨리스 그룹, 그리고 와엘 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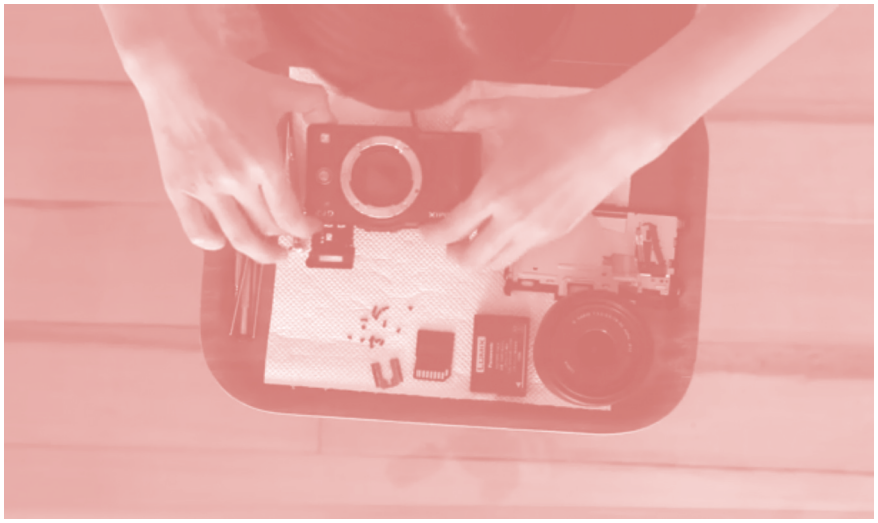
이야기의 재건 1에 이어 이야기의 재건 2는 영국의 아티스트 던컨 캠벨과 오톨리스 그룹의 전작(全作)과 이집트 출신의 아티스트 와엘 샤키의 인형극 삼부작이 소개될 예정이다. 마리오네트 인형극 형태로 종교, 신화, 정치, 문화가 뒤섞인 역사의 시간들을 알레고리로 변형하는 와엘 샤키의 작품, 2010년 터너상 후보였던 오톨리스 그룹과 2014년 터너상 수상자인 던컨 캠벨이 재건하는 숨겨졌거나 사라진 시간들의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Next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2 :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

As a sequence of Reconstruction of Story 1, Reconstruction of Story 2 introduces almost the whole works of a British artist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s trilogy of marionette shows. The works of Wael Shawky, an Egyptian artist allegorically modifies historical time intermixed with religion, myth, politic, and culture into the form of marionette, the hidden or lost world of time reconstructed by The Otolith Group, shortlisted as 2010 Turner Prize nominee and Duncan Campbell who won the 2014 Turner Prize, will be screened after Aug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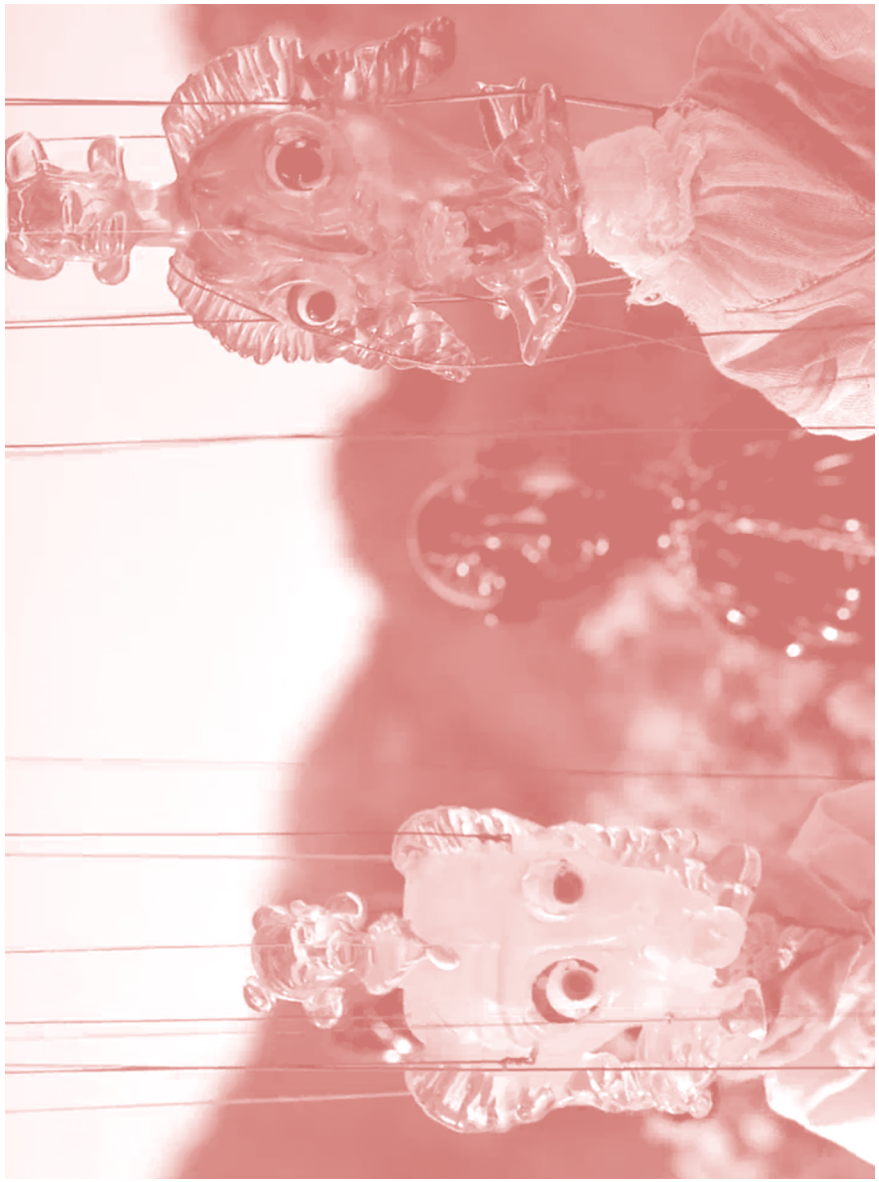
오톨리스 그룹 The Otolith Group
<래디언트> *The Radiant*





던컨 캠벨 Duncan Campbell
<버나데트> *Bernadette*

와엘 샤키 Wael Shawky
<십자군 카바레 : 카르발라의 비밀> *Cabaret Crusades : The Secrets of Karbala*



기간
2016. 6. 8(수) — 7. 23(토)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필름앤비디오

입장료
서울관 단일 관람권(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18:00 — 21:00)

주차
운영시간(매일): 08:00 — 23:00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Event
June 8th(Wed), 2016 — July 23rd(Sat)

Venue
MMCA Film and Video

Admission Fee
MMCA Seoul single-day ticket(4,000 won)/
Wed, Sat Free admission on extended
opening hours(18:00 — 21:00)

Parking
Daily Hours: 08:00 — 23:00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Kor)
facebook.com/nmmcakorea(Eng)

MMC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